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

- 소위 쌍방·미송리문화를 중심으로 -

오 대 양**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고대사의 한 시원지로 여겨지는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최근 학계 내 외에서 관심 받고 있는 고조선문화의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요동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남·북 두 개의 분포구로 구분되며, 전체 3단계에 걸친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요남의 제1단계는 산동지역과 영향관계에 있는 쌍타자 1기(B.C. 21C 전후)에서 2기(B.C. 18~15세기)를 거쳐 토착 전통이 매우 강한 3기문화(B.C. 14~11세기)로 전환된다. 요북은 마성자문화가 적어도 요남의 1기후반(B.C. 19세기 전후)에 태동되어 대략 유사한 변화상을 보이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두 지역의 독자적인 행보를 살필 수 있다. 그러나 B.C. 9세기 전후 요동의 남북 두지역과 서북한 지역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동질성이 강한 유사문화권, 소위 미송리문화로 점차 통합되어간다.

한편 비파형동검 관계문화는 미송리문화의 한 축이 되는데 그 중심은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된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이 문화의 주체자를 고조선의 중심세력으로 볼 수 있다면, 마성자(동굴묘, 석관묘)와 쌍타자(적석묘, 고인돌)문화는 당지의 토착문화로, 미송리문화는 이들의 복합문화, 비파형동검문화(석곽(목관)묘)는 선진의 래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요컨대, B.C. 9~6세기 미송리문화는 당지의 전통문화가 복합된 석묘문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한 고조선왕국의 한 지역문화로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요동지역, 청동기시대문화, 쌍방문화, 미송리문화, 고조선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미송리문화의 형성과 전개 |
| II.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 | V. 맺음말 |
| III. 쌍방·미송리문화에 대한 검토 | |

* 이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으며, 2015년 5월 ‘고조선연구의 신지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 / uhps@hanmail.net

I. 머리말

요동지역은 우리 고대사의 한 시원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 지역 청동기문화연구는 고조선은 물론 그 이전 시기까지 아우른다. 더불어 그 연구 영역 안에는 고구려사의 출발 및 정체성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민족사의 기원과 변천과정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조선관련 연구는 매우 다방면에 걸쳐 그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선의 강역 및 중심지 설정과 대외관계, 이와 연관된 고고학적 유물·유적에 대한 형식학적 고찰과 기원탐구가 주된 논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요동지역은 줄곧 고조선의 중심지로서 주목 받아 왔다. 그 대상으로는 정가와자유형과 쌍방문화 혹은 새롭게 제기된 신성자문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사실상, 이상의 문화유형들은 각각 지역을 달리하여 전개된 관계로 그 내용상 사소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본질과 주체적 문화내용은 매우 유사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커다란 보편성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고인돌과 석관묘, 적석묘, 석곽(목관)묘 등의 돌무덤 위주의 묘제,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 선형동부와 조문경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표지적 유물, 더불어 이들과 공반관계에 있는 유물조합 속에 내재된 각종 다양한 문화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¹⁾

그런데 최근에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서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비파형동검과 다뉴경을 표지로 하는 청동기문화의 변화상을 통해 그 중심지 이동에 대한 실마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하지만 단지 청동유물의 조합과 그 특수성만으로 당대의 중심문화가 된다는 관점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의문에는 십이대영자문화와 동시기에 병행된 쌍방문화의 내용이 요서지역에 비해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변지역 문화와의 보다 종합적인 비교를 통한 중심문화로서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연구성과를 개설적으로 살펴본 후, 고조선 문화의 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쌍방문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변화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연구 범위에는 최근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쌍방문화가 커다란 범주 속에서 미송리형토기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 또한 포함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요북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된 신성자문화³⁾의 개념과 내용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을 포괄하여 고조선문화에 대응시키고자 한다면, 십이대영자문화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그 중심문화로서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을 한편의 글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지면상으로 한계가 있기에 여기에서는 그 상관내용의 대략을 정리하여 후속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⁴⁾

1) 吳大洋, 『朝鮮半島北部地區青銅器時代石構墓葬研究－兼論與中國東北之比較』吉林大博士論文, 2013, 104~108쪽.

2) 백종오, 「遼西地域 青銅器時代 文化設定에 대한 檢討」, 『고조선문명의 학제적연구 정기 학술대회발표집』, 2014, 60~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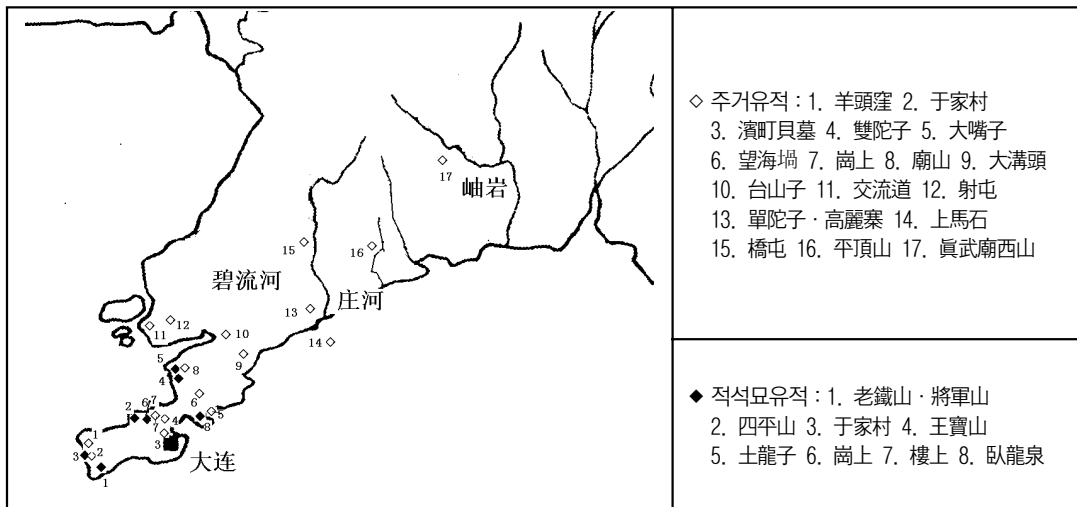
3) 華玉冰,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2011, 186~187쪽.

4)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2단계에 걸친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글을 통해서요동지역 청동기시대문화의 양상과 변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소위 쌍방, 미송리문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

II.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시대문화의 양상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태자하를 경계로 남북 두 개의 분포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해당 문화유형이 자리한 곳의 자연·지리적 환경 및 고고학적 문화내용의 차이에 근거한다.⁵⁾

먼저 요동 남부지역은 태자하 이남의 천산산지와 발해연안일대이다. 대부분이 요동반도에 포함되며 천산산지에서 뻗어 나온 구릉성 저산지대에 속한다. 이 지역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쌍타자문화에서 쌍방문화-윤가촌유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부지역은 태자하 이북의 요하평원지역에 해당된다. 이곳은 혼하와 휘발하유역이 중심이 되는 요녕성 동북부와 길림성 서남부의 접경지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마성자문화에서 신성자문화-정가와자유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로 진입한다.



〈지도 1〉 쌍타자문화의 주요유적 분포도

요동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는 남부의 쌍타자문화이다. 이 문화는 요동반도 남단의 대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대략적으로 기원전 21세기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는다.⁶⁾ 현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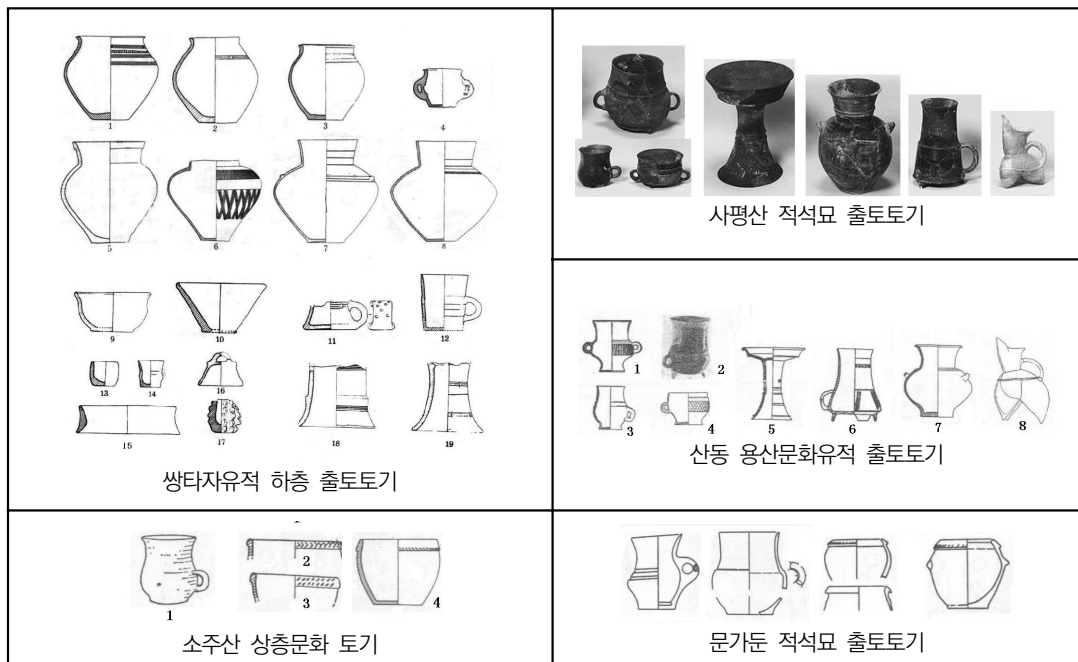
정의와 특징 및 편년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미송리문화의 성격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문헌연구의 기초를 바탕으로 고조선과 미송리문화의 실제적인 상관성을 논의하며, 덧붙여 동시기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와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당대 중심문화로서의 설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며, 두 번째 내용은 순차적인 연구와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5)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1998-2期, 1998, 131쪽; 朱永剛, 「區位, 序列, 編年, 系統: 동북지역 청동기시대문화 구조체계 논강」,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9, 88쪽; 오대양, 앞의 책, 2013, 101쪽.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雙陀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見和研究』, 科學出版社, 1996, 53~54쪽; 趙寶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 124~125쪽.

국학계에서는 이 문화를 전체 3기로 획기하여 각기 쌍타자 1·2·3기문화로 구분하고 있다.⁷⁾

제1기문화에 속하는 유적은 쌍타자유적 하층, 대취자유적 하층, 우가촌유적 하층, 노철산·장군산적석묘, 사평산적석묘 등이 있다. 이중 대취자유적의 하층유구에서 청동과(T33④:21)⁸⁾ 한 점이 발견되어 이미 이시기부터는 청동기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로 축조되는 적석묘유적들과 그 내부에서 출토되는 산동 용산문화계열의 토기들이다. 쌍타자 1기문화의 적석묘 출토 토기는 주거유적 출토품과 대체적으로 유사한데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⁹⁾ 첫번째는 산동 용산문화의 영향을 받은 삼족기와 손잡이 달린 잔이 대표적이며 검은색의 고운 진흙질로서 기벽이 1~3mm 정도로 얇은 것이 특징적이다. 두번째는 당지의 후기 신석기문화를 계승한 토착문화계열 토기이다. 특징은 모래가 섞여있는 붉은색 토기(罐, 杯, 豆 등)가 많은데 구운 온도가 낮고 기벽이 두껍다.¹⁰⁾ 쌍타자 1기의 연대 범위는 쌍타자하층 F16의 B.P.4010±95년과 우가촌 하층(목탄시료)의 B.P.3630 ±85년 등 절대연대 측정값을 통해 대략 기원전 2100~1900년 사이로 편년 된다.¹¹⁾



〈도 1〉 쌍타자1기 및 관련문화 출토 토기

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앞의 책, 1996,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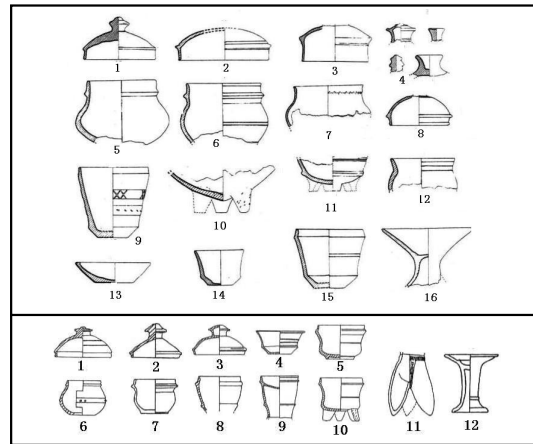
8)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2000, 大連出版社.

9) 華陽·霍東峰等, 『四平山積石墓再認識』, 『赤峰學院學報』 2009-2期, 10~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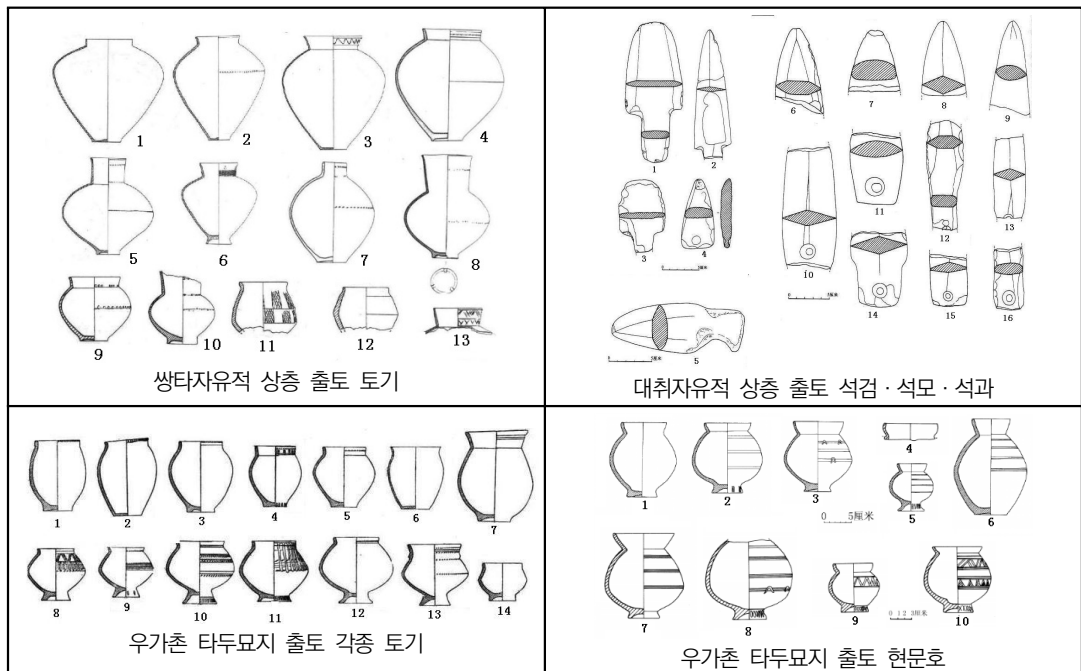
10) 백종오·오대양, 『遼南地域 青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2013, 204쪽.

11) 趙賓福, 앞의 책, 2009, 124~125쪽.

2기문화에 속하는 유적은 쌍타자유적 중층, 대취자유적 중층, 단타자 토광묘, 단타자 · 고려채유적, 상마석용관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전단계에 보편적으로 유행하였던 적석묘 장석이 돌연 사라지며, 문화내용이 산동지역의 악석문화와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이다. 특히 토기의 문양구성에 凸菱文 · 刻齒文, 附加堆文 등이 관찰되며 특히 甗의 허리부분에 시문된 附加堆文과 단추모양 장식 등은 이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이 된다.¹²⁾ 쌍타자 2기문화의 연대는 산동 악석문화의 연대와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기원전 1900~1500년 사이로 편년된다.¹³⁾



〈도 2〉 쌍타자유적 중층(上) 및 악석문화유적(下) 출토 토기 비교



〈도 3〉 쌍타자 3기문화 유적 출토유물

12) 朱永剛, 앞의 글, 1998, 135쪽.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앞의 책, 1996, 145~146쪽.

제3기문화는 쌍타자유적 상층을 표지로 하며 양두와, 대취자상층, 우가촌상층, 타두묘지, 왕보산, 토룡자묘지 등이 있다. 이시기에는 요동지역에서 산둥지역의 문화요소가 거의 배제되면서 당지의 토착문화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전단계에 단절되었던 적석묘 전통이 다시 등장하며 벽류하유역에서는 고인돌 축조가 보편화된다.¹⁴⁾ 쌍타자 3기문화의 연대범위는 쌍타자유적과 타두묘지의 절대연대측정값에 근거하여 기원전 1400~1100년 사이로 편년된다.¹⁵⁾

요남의 쌍타자문화와 병행하여 요북지역에서는 마성자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문화는 동굴무덤을 대표로 하며 주요 분포범위는 태자하 중상류의 요양, 본계, 신빈 등지에 집중된다. 지금까지 발굴된 주요 유적에는 본계현 마성자 A·B·C동굴, 북전 A동굴, 산성자 B·C동굴, 장가보 A동굴, 사가외자 동굴, 근변사 동굴,¹⁶⁾



〈지도 2〉 마성자문화의 동굴유적 분포도

신빈현 동승 동굴,¹⁷⁾ 대사평현 소흥석립자·동산·남둔 동굴¹⁸⁾ 등이 있다. 이상의 유적에서는 각종 다양한 형식의 무덤 150기 가량이 발굴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동굴내부에 얇은 구덩을 파거나 몇 개의 작은 석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과 부장품을 놓는 형태이다. 이외에 몇 개의 석재를 장방형 혹은 타원형태로 둘러놓은 石壙 형태도 확인되며, 일부는 석판 여러 개를 이어 세우거나 적석을 한 구조도 있다. 장법을 보면 대부분 묘실 내에서 직접 화장을 하거나 간골 화장되었고, 양신직지장과 측신장 및 아이와 어른의 합장형태도 확인된다. 이 문화의 연대범위는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연대측정 결과 기원전 1800년~1100년 사이로 편년되었다.¹⁹⁾

마성자문화의 분기와 편년은 대체적으로 2단계²⁰⁾에서 3단계,²¹⁾ 혹은 4단계²²⁾에 걸친 발전과정이 상정되고 있으나 연구자별로 개별 유적에 대한 분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성자 보고서의 분기안을 참고하여 전체 3단계로 구분하겠는데, 여기에는 동굴내에서 확인되는 석관묘제의 변화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²³⁾ 각 단계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및 〈도 4〉와 같다.

14) 吳大洋, 앞의 책, 2013, 129~130쪽; 오대양,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2014, 97~98쪽.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앞의 책, 1996, 3~5쪽; 朱永剛, 앞의 글, 2009, 88쪽; 趙賓福, 앞의 책, 2009, 124~125쪽.

1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1994, 文物出版社; 唐森,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述評」, 『東北史地』 2008-6, 72~73쪽.

17) 撫順市博物館·新賓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遼寧省新賓滿族自治縣東升洞穴古文化遺存發掘整理報告』, 『北方文物』 2002-1, 6~7쪽.

1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위의 글, 2002, 169~171쪽; 唐森, 위의 글, 2008, 72~73쪽.

1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위의 책, 1994, 181~182쪽.

최근에는 태자하 중하류지역에서 발굴된 일련의 석관묘유적 또한 마성자문화 후기단계(기원전 12~11세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유적으로는 요양 집관청 석관묘, 본계 호구, 정가촌, 봉밀립자, 맹가보자, 정가육 석관묘, 신빈 노성 석관묘 등이 대표적이다.

20) 趙賓福, 『馬城子文化新論-遼東北部地區夏商時期遺存的整合研究』, 『邊疆考古研究』 6, 2007, 科學出版社, 143~164쪽.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위의 책, 1994, 275~282쪽.

22) 華玉冰, 앞의 책, 2011, 173~181쪽.

23) 吳大洋, 앞의 글, 2013, 110~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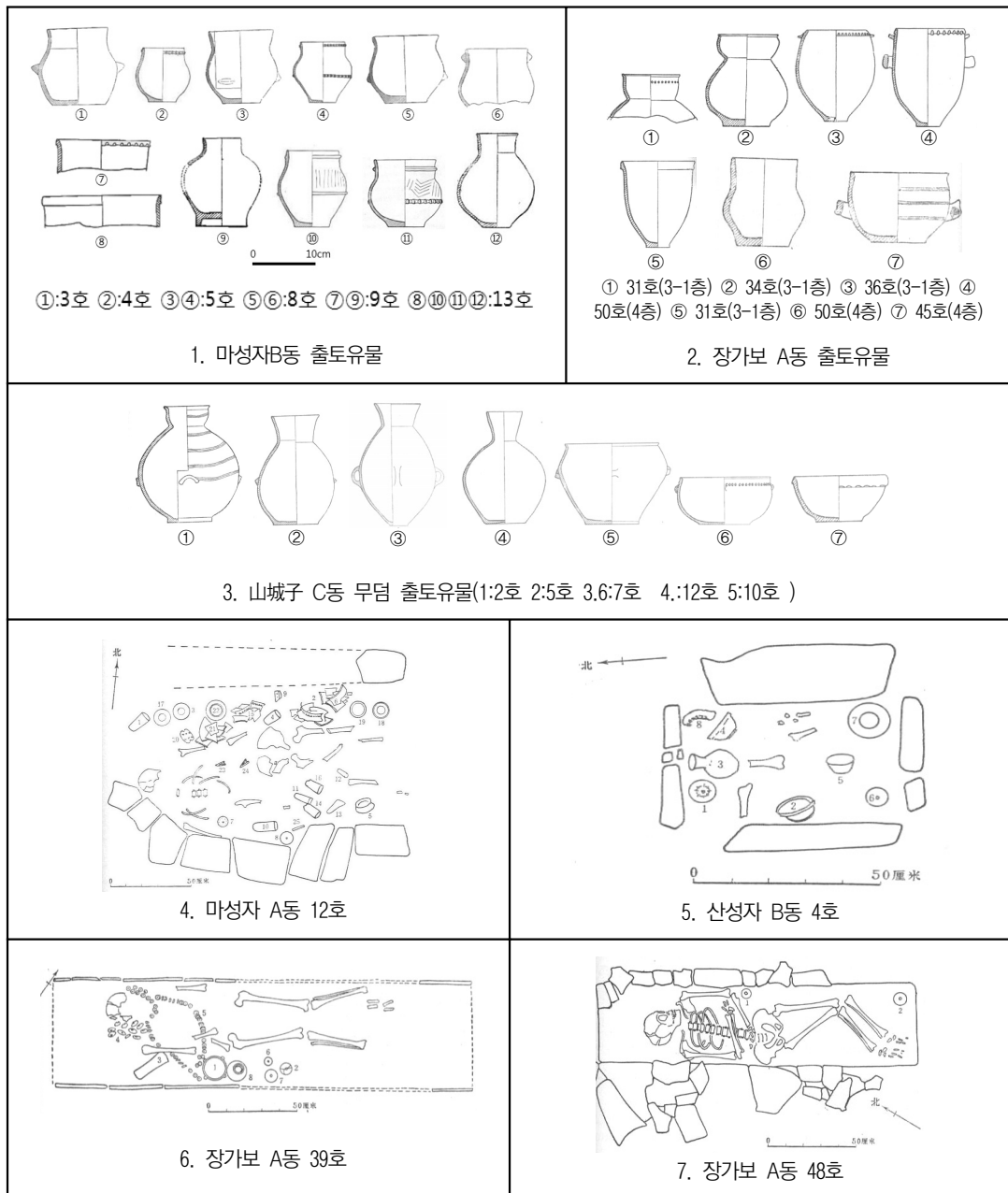
〈표 1〉 마성자문화의 단계별 특징

단계		편년	대표유적	대표토기	무덤특징
1		B.C 18세기 이전	마성자 B동, 북전 A동	紅陶 혹은 紅褐陶 위주, 구연과 동체부에 附加堆文 시문, 주요기종은 壺, 罐	無葬具, 無封土의 얇은 土坑墓 위주
2		B.C 17~14 세기	장가보A동4층, 산성자B동2층, 마성자A동	각종 형식의 손잡이가 발달, 壺의 구연 하부로 圓點, 삼각형의 點列文이 시문.	원시형태의 석관묘제 출현
3	전기	B.C 13~12 세기	장가보A동3층 산성자C동4·3	경부의 경사도 小, 최대경이 중부로 이동, 동체부의 형태가 腰鼓形→渾圓球型 변화, 褐陶과 灰陶의 수량이 증가, 豎耳長頸壺와 鉢口壺의 출현	동굴내 석관묘의 보편적 축조
		B.C 12~11 세기	장가보A동2층 산성자C동2층, 마성자C동, 동승, 남둔, 홍석립자	灰褐陶와 黑陶의 증가, 각종 손잡이 발달, 부장용의 소형 토기 증가, 壺의 경부가 나팔형으로 변화	석관묘제의 탈동굴화 현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동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남 · 북 두 개의 분포구로 구분되며, 전체 3단계에 걸친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요남의 제1단계는 쌍타자 1기문화로 그 시작연대는 기원전 21세기 이전이다. 기원전 18~17세기에는 산동의 악석문화와 연관된 쌍타자 2기문화로 전환되며, 기원전 14~11세기까지는 토착 전통이 매우 강한 쌍타자 3기문화가 지속된다.

요북지역은 남부지역과 대략적으로 유사한 변천과정을 보이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다. 1단계의 연대는 쌍타자 1기의 하한에 근접하지만 그 상한연대를 비롯한 문화내용의 전반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2단계는 기원전 17~14세기 전후로 이때부터 요북지역에서도 초보적인 형태의 돌무덤, 즉 석관묘제의 시원형식이 출현된다. 3단계(기원전 13~11세기)는 문화권내에서 석관묘제의 축조가 보편화 되는 시기이다. 전 ·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동굴내 석관묘제의 보편화(기원전 13~12세기), 후기에는 전형적인 형태의 석관묘제가 탈동굴화의 현상(기원전 12~11세기)을 보인다.²⁴⁾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이상의 단계설정 및 편년문제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다. 그러나 이후에 연속되는 쌍방문화의 범위와 전개양상 및 서북한 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와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吳大洋, 앞의 책, 2013, 177~178쪽; 오대양, 앞의 글, 2014, 102쪽.



〈도 4〉 마성자문화 출토유물(上1~3) 및 석관묘제(下4~7) 각종

Ⅲ. 쌍방·미송리문화에 대한 검토

최근 중국학계에서 논의되는 소위 쌍방문화는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쌍방유형과 양두와유형²⁵⁾ 혹은 쌍방유존(遺存)²⁶⁾ 등으로 불려왔으나 최근 趙寶福에 의해 보다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쌍방문화가 제안되었다.²⁷⁾ 그에 의하면 요동반도의 “上馬石 上層類型”과 요북지역의 “祝家溝遺存” 그리고 “老虎沖遺存” 등은 모두 유사한 문화내용을 보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범주에 해당되는 쌍방문화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주요 특징을 보면 “선명한 형태로 弦文이 표현된 토기를 전형으로 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문이다. 또한 삼족기는 유행되지 않으며 비파형동검과 동부, 동모, 동촉 등의 청동무기가 공반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華玉冰은 요북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弦文壺(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은 요남의 쌍방문화와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기원전 9~6세기 요북지역 청동기문화는 마성자문화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형태임을 강조하면서 무덤에서 출토되는 弦文壺와 무문의 鉢口壺, 橫耳球腹罐 등의 조합을 전형특징으로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요남지역 쌍방문화(弦文壺와 筒形罐의 조합)와 구분되는 주요한 문화속성으로 보고, 발굴된 대표유적의 명칭을 따라 신성자문화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

그런데 쌍방문화 혹은 신성자문화이던 간에 그 주요 특징은 현문(혹은 무문)의 橫橋耳壺와 橫耳球腹罐(혹은 二重口沿筒形罐)을 기본조합으로 하며, 동시에 비파형동검과 동모, 청동부, 청동촉 등의 청동기가 공반되는 공통적 속성을 지닌다. 대체적으로 석재를 葬具로 한 무덤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며,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 주목되는 점은 이와 유사 형태의 문화내용이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화유형들은 비록 지역적 차이에 따른 일련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문화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²⁹⁾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해당 자료가 출토된 최초의 표지유적명을 붙이는 고고학계의 용례를 생각한다면 미송리유적과 상관된 학술용어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³⁰⁾

이 글에서는 이상 세 종류의 문화유형을 모두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고자 하며 통칭하여 미송리문화로 부르겠다. 그 의미는 미송리형토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다양한 문화양상의 전반으로 정의된다. 더불어 미송리문화의 각 지역별 유형인 요남의 쌍방유형, 요북의 신성자유형, 서북한의 미송리유형은 그 하위 개념으로서 미송리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표출된 각 지역별 특수성(의 유형화) 정도로 풀이 할 수 있다.

25) 陳光,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1989, 文物出版社.

26)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1982-2期, 139쪽; 王巍, 「雙房遺存研究」, 2004, 『慶祝張忠樸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27) 趙寶福, 앞의 책, 2009, 158~159쪽.

28) 華玉冰, 앞의 책, 2011, 186~187쪽.

29) 백종오·오대양, 앞의 글, 2013, 208쪽.

30) 배진성,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동태와 분포권」,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105쪽.

〈표 2〉 미송리문화 각 지역별 유형의 특징

지역		요남지역	요북지역	서북한지역
유형		쌍방유형	신성자유형	미송리유형
묘제		고인돌, 적석묘	고인돌, 석관묘	고인돌(적석형), 석관묘, 동굴묘
공 반 유 물	토 기	미송리형토기, 網文壺, 無文罍耳壺 이중구연토기	미송리형토기, 無文鉢口壺, 橫耳罐, 鉢	미송리형토기 이중구연토기 팽이형토기
	청 동 기	비파형동검, 동부(석범), 동촉, 공구, 장식품	비파형동검, 동모, 동부(석범), 동촉, 공구	비파형동검, 동모 동령, 동부, 동촉
	석 기	석부, 석촉	석부, 석촉, 석검	석모, 석검, 석부, 석촉

1. 쌍방·신성자유형에 대한 검토

그동안 쌍방유형의 내용을 비롯한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중에서도 관련 내용의 대개를 정리하여 처음으로 유형화 시킨 것은 王巍인데, 그는 “1980년 遼寧省 大連市 新金縣 雙房遺蹟에서 발견된 大石蓋墓를 대표유적으로 하는 고고학 문화유형”이라 정의하면서 新金 雙房墓地和 碧流河大石蓋墓遺蹟, 鳳城 東山墓地, 撫順 大甲房石棺墓, 遼陽 二道河子石棺墓 등에서 발견된 일련의 大石蓋墓와 石棺墓를 모두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³¹⁾

이후 吳世恩³²⁾과 趙寶福 등에 의해 관련내용이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되면서 요동 각지에서 확인되는 미송리형토기 관련 유적을 통칭하여 쌍방문화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華玉冰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고 각지에서 확인되는 관련문화의 내용은 별개의 문화로 구분되어질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요동의 쌍방문화를 미송리문화에 포함되는 쌍방유형과 신성자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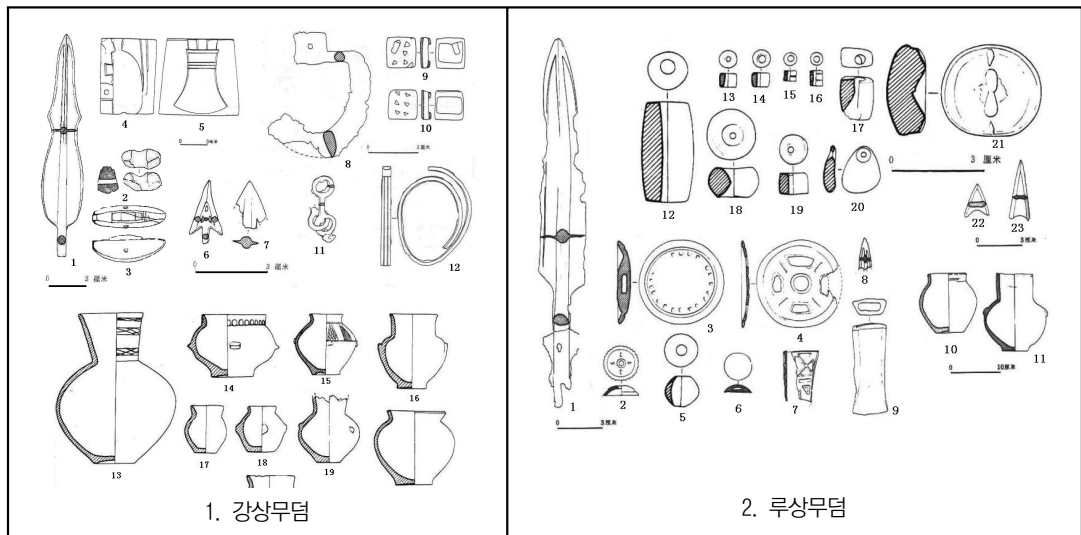
먼저 요남지역의 쌍방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대련 강상, 루상, 외룡천 등의 적석묘유적과 보란점 쌍방묘지를 대표로 하는 벽류하유역의 고인돌유적 등이 포함된다. 주요 특징을 보면 무문의 손잡이(口脣狀 혹은 紐狀) 달린 토기 및 미송리형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조합, 동시에 쌍타자 3기문화에서 연속되는 그물문과 철릉문토기, 이외에 비파형동검과 청동부, 청동촉 등이 공반된다. 대체적으로 석재를 장구로 한 무덤양식인 고인돌과 적석묘에서 많이 발견되며,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 진행된 쌍방유형의 연대범위는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의 형식변화에 근거하여 전기와 후기로

31) 王巍, 앞의 글, 2004, 402~403쪽.

32) 吳世恩, 「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 『北方文物』 2004-2.

구분되고 있다.³³⁾ 전기의 것은 구연부 형태가鉢口形에서 점차斜口形으로 변화되며, 동체부는 아래로 처진 형태에서 점차 동그란 형태로 발전된다. 후기에는 점차적으로 현문과 손잡이가 사라지며, 경부가 세장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비파형동검은 검신이 점차 세장화되는 형태로 변화되는데, 후기로 갈수록 날부의 곡선이 뚜렷한 형태에서 점차 밋밋해지고 돌기부가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시기 적석묘유적은 강상과 루상, 와룡천 유적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매우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토기는 대부분 무문의 홍색이 많고 종류는 罐, 壺, 豆(굽집시) 등이 있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도끼, 화살촉, 차마구 및 각종 장신구가 확인되었으며 몇 기의 무덤에서는 불에 녹아 덩어리가 된 청동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옥구슬을 비롯한 홍구슬과 조개장식 등 각종의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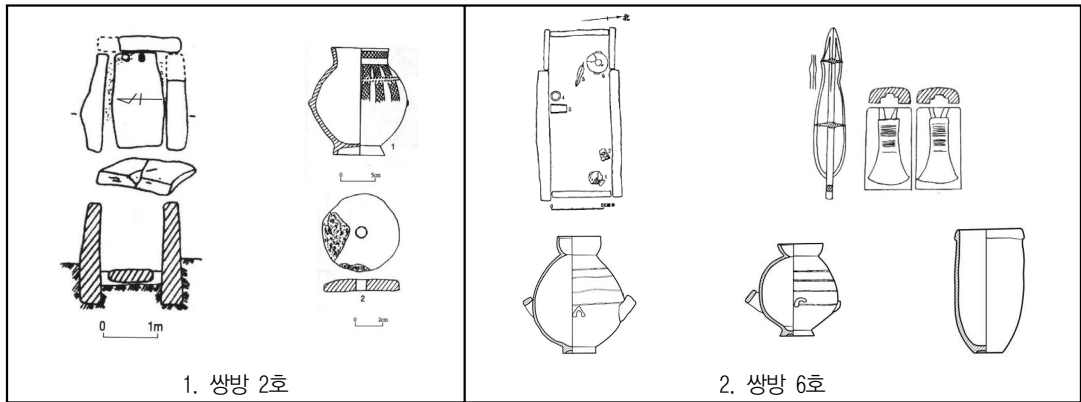
〈도 5〉 강상 및 루상 적석묘 출토유물

강상묘지는 쌍타자 3기문화의 퇴적층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강상 12호에서 출토된 그물문 단경호(도 5, 1-15)는 우가촌 타두적석묘의 것과 형식발전관계에 있다. 따라서 강상묘지의 연대는 쌍타자 3기의 하한 연대인 기원전 11세기를 넘을 수 없다.³⁴⁾ 발굴보고서에 따르면³⁵⁾ 강상과 루상, 와룡천묘지 출토 비파형동검의 형식비교를 통해 강상묘지의 연대는 루상과 와룡천묘지보다 빠르며, 그 연대는 기원전 8세기 이전으로 보았다. 이외에 루상묘지의 연대는 기원전 6~5세기, 와룡천묘지는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기원전 4세기 전후로 편년하였다. 따라서 강상은 쌍방유형의 전기, 루상과 와룡천은 후기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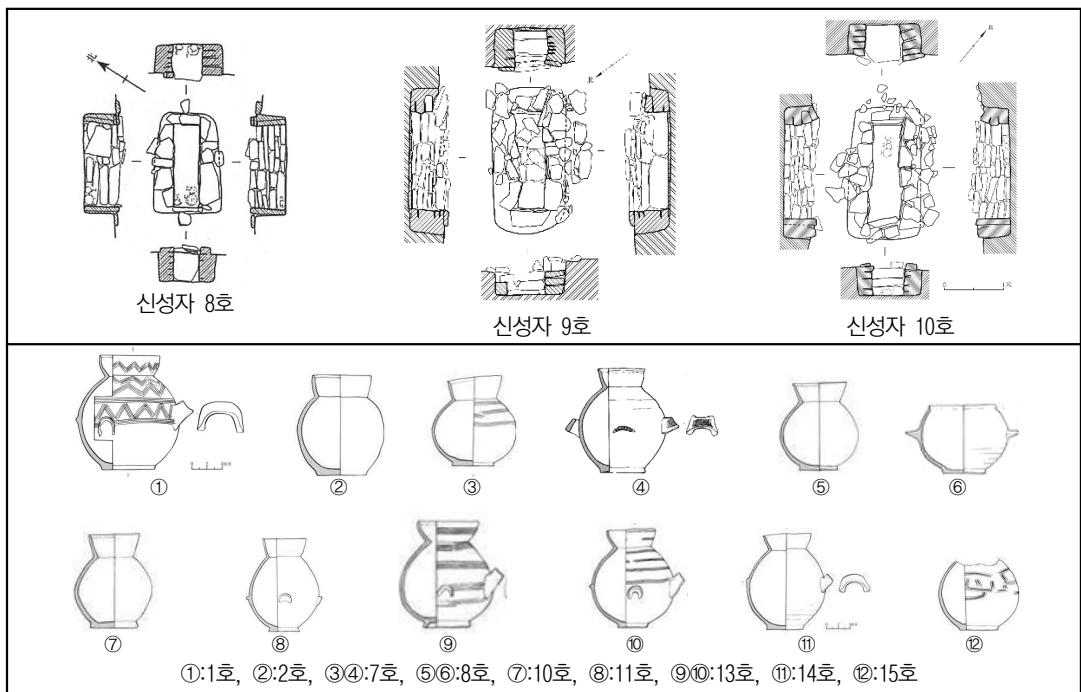
33) 朱永剛,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 2008-2, 89~97쪽.

34) 오대양, 앞의 책, 2013, 106~108쪽.

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위의 책, 1996, 110~118쪽.



〈도 6〉 보란점 쌍방유적 탁자형 고인돌 평·단면도 및 유물



〈도 7〉 본계 신성자유적 개석형(석축식) 고인돌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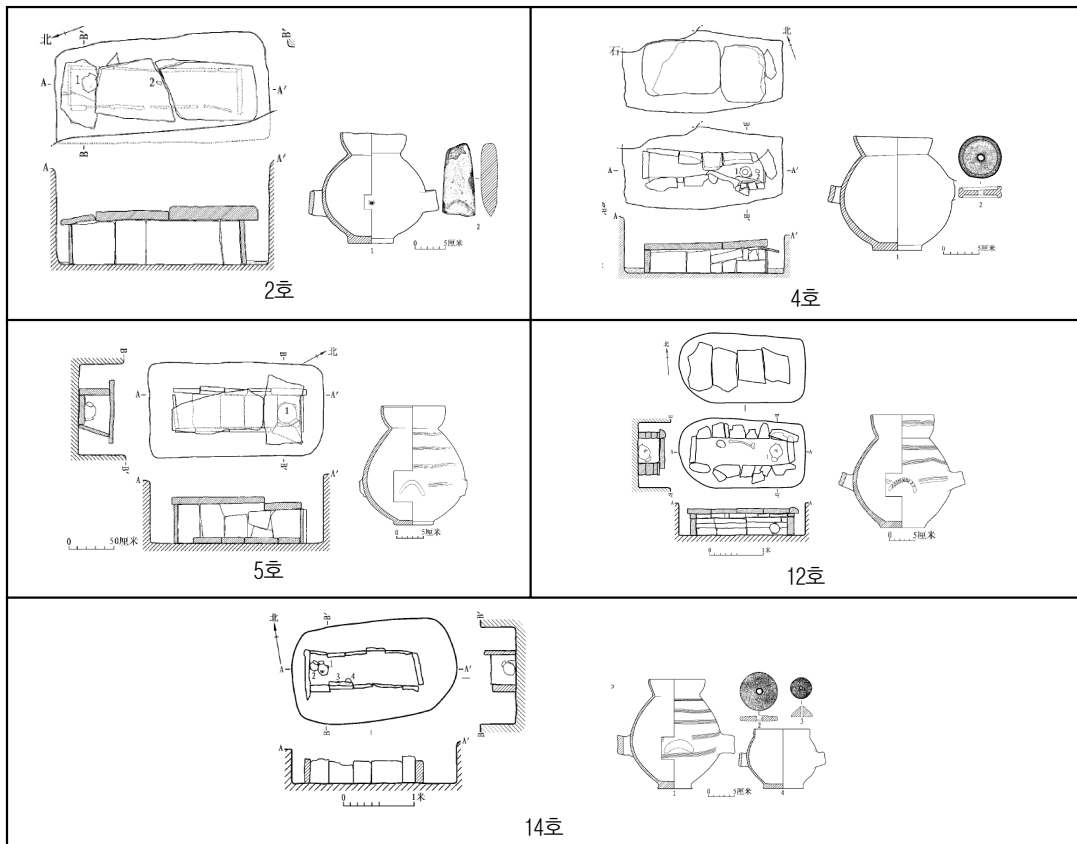
쌍방유적의 6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는 모두 쌍방유형 전기단계의 전형적 특징을 보인다.³⁶⁾ 또한 바로 인접해 위치한 2호 고인돌 출토 그물문 토기(도6, 1-1)는 우가촌 타두적석묘 출토품

36) 朱永剛,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 2008-2, 2008, 180~184쪽.

과 거의 유사하며, 강상적석묘 12호 출토품과(도5, 1-15)는 문양 구성상 유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쌍방유적의 고인들은 대체로 쌍방유형 전기단계의 유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요북의 신성자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대표적으로 본계 신성자묘지, 개원 건재촌묘지, 서풍 동구 석관묘유적, 성신촌 석관묘, 요양 이도하자 석관묘 등이 있다. 모두 석재를 장구로 한 무덤유적군에 포함되며, 아직까지 이 유형에 속하는 대규모의 취락유적이 보고된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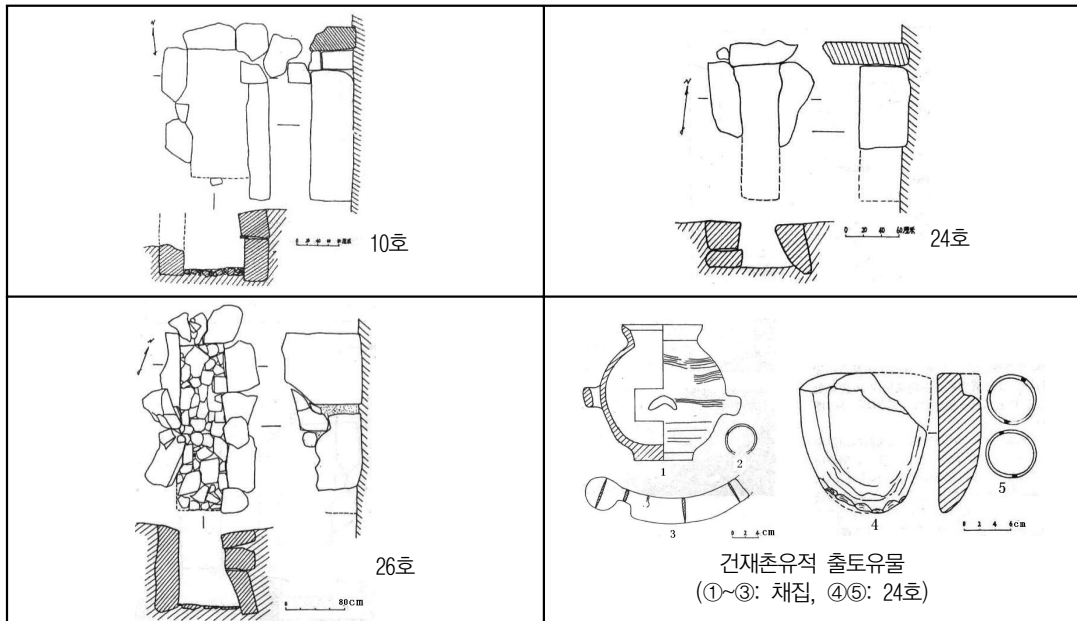
신성자유형에서는 모두 16기의 고인들이 발굴되었다. 대다수의 묘실은 석재를 쌓아 만든 개석형 고인들이 다. 조사된 대부분의 고인들은 묘실 바깥으로 소량의 석재를 둘러놓아 덮개돌의 하중으로부터 묘실을 보호하고 있다. 거의 모든 묘실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형성된 연대는 기원전 9~8세기를 정도로 편년된다.³⁷⁾ 서풍 동구유적과 성신촌, 요양 이도하자 석관묘에서는 신성자유형의 미송리형토기와 동일한 특징의 것이 출토되어 모두 신성자유형 전기유적에 해당된다.



〈도 8〉 서풍 동구 석관묘 및 출토유물

37) 遼寧省考古文物研究所 等, 앞의 글, 2010, 782~784쪽.

건재촌유적에는 모두 35기의 고인돌이 산의 남사면을 따라 수기씩 열을 지어 분포해 있으며 이중 3기(10·24·26호)가 발굴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무덤 상부에는 소량의 적석더미가 잔존해 있으며, 지표상으로 묘실 벽석의 일부분과 덮개돌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깨진돌과 판석을 혼용하여 묘실을 축조한 개석형 고인돌에 해당된다. 이외에 발굴되지 않은 몇 기의 무덤 중에는 두꺼운 판석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한 장의 덮개돌을 덮었다는 보고서의 설명³⁸⁾으로 보아 유적내 탁자형 고인돌과 공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재촌유적의 발굴된 3기에서는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미발굴 유적에서 구연부가 짧고 문양이 조잡한 미송리형토기 1점이 채집된 바 있다. 요북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토기가 유행한 연대는 대략 기원전 7세기 전후로 해석되기 때문에,³⁹⁾ 건재촌유적의 형성연대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재촌유적은 후기단계의 유적으로 설정하겠다.



〈도 9〉 개원 건재촌유적 고인돌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2. 미송리유형에 대한 검토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유적의 발굴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그 범위와 개념설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글에서는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된 미송리형토기 관계의 유물·유적군

38) 許志國, 「遼寧開原建村石棺墓群」, 『博物館研究』 2000-3, 64~65쪽.

39) 朱永剛, 앞의 글, 2008, 95~97쪽.

정도로 정리하겠다. 따라서 이 유형의 표지적인 유물은 미송리형토기인데 요동지역의 쌍방형토기 혹은 弦文壺 등과 동일한 기물이다.

대체적으로 평저에 동체가 볼록하며 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 단면이 표주박을 반으로 잘라 놓은 형태와 유사하여 북한에서는 표주박형 단지로 불리기도 한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와 진흙을 사용하며, 소량으로 활석이 섞였다. 색깔은 갈색, 회갈색, 흑갈색 등이 많고, 표면은 대체로 마광된다. 겉면에는 집선의 현문이 횡으로 여러 줄 있거나 현문대의 사이에 거치문이 돌아가거나 드물게 삼각문이 보이기도 한다. 동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손잡이(橫橋狀, 豎橋狀, 구순상, 누상파수 등)가 1쌍 혹은 2쌍씩 대칭으로 달려 있다. 이외에 무문으로서 손잡이를 비롯한 장식적 요소가 전혀 부가되지 않는 형태의 것들이 전형적인 것들과 공반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그동안 북한학계에서는 주로 비파형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표식적인 유물로 인식하여, 그 기원과 발전과정을 중점으로 연구되어 왔다. 연대문제와 관련해서는 요동반도 남부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 상한연대를 기원전 10세기 전후, 중심연대는 기원전 8~7세기 전후가 보편적 인식이었다.⁴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동강문화론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의 성립시기를 기원전 30세기 전후로 설정하여 미송리형토기의 편년도 모두 상향조정된다. 더불어 미송리형토기의 기원지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으로 그 기원문제는 팽이형토기의 발전과 연관된 것으로 주장되기 시작한다. 즉, 미송리형토기는 팽이형토기의 한 갈래로서 팽이형토기문화 제2단계부터 유행하였고 제3단계에는 변형형식인 목방리형토기, 제4단계에는 남양형토기로 발전된다는 인식이다.⁴¹⁾ 이러한 현상은 평양 일대의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기인하는데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⁴²⁾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는 요동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인돌과 석관묘 등 무덤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나, 최근 주거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반유물 관계를 보면 주로 팽이형토기의 각종 형식과 공반되거나, 이중구연토기⁴³⁾ 1~2점씩이 세트관계를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혈구가 새겨진 석검 혹은 석모 등이 특정단계에 집중적으로 공반되는 현상인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 지역 미송리형토기의 상대편년은 물론 형식의 변천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미송리형토기의 형식분류 및 편년에 관해서는 현재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977년 西谷正은 미송리동굴의 상층유물에 대해 新, 古 두 형식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미송리Ⅰ형, 후자를 미송리Ⅱ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藤口健二는 신암리 모래산 1~3호 주거지 출토품을 신암리 Ⅲ기유형으로 분류하고, 기물의 형태 및 공반유물에 근거하여 신암리 ⅢA형과 신암리 ⅢB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신암리 ⅢB형은 미송

40) 김용간, 「미송리동굴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과학출판사 :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20~127쪽; 황기덕, 「비파형동검문화의 미송리유형 1- 미송리유형의 유적유물과 그 연대」, 『조선고고연구』 3, 1989, 3~9쪽

41) 서국태, 「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1996, 17~21쪽; 김종혁 · 전영수, 「표대유적 팽이그릇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 2003, 5~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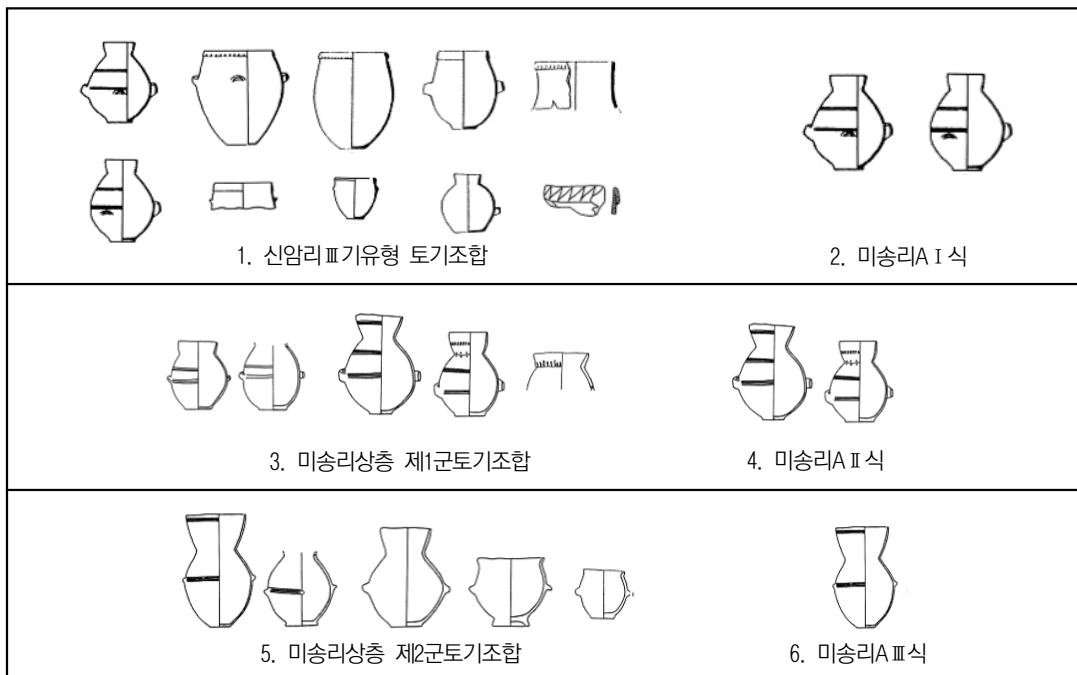
42) 배진성, 앞의 글, 2015, 103쪽.

43) 서북한지역에서 미송리형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 토기는 평저를 기본으로 하며, 구연부에 2조의 눌러찍어 새긴 단상선문이 조합되는 공통적 속성을 보인다. 요남지역 고인돌에서 공반되는 첩순통형관과 동일한 기종이지만 구연부의 문양새김 수법에서 차이가 보인다.

리동굴 상층유형에 해당된다.⁴⁴⁾

최근 김미경은 서북한지역 미송리형토기를 형태적 특성과 분포지역의 차이에 따라 A, B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형은 청천강 이북의 압록강유역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전술한 신암리Ⅲ기유형과 미송리상층유형이 해당된다. B형은 청천강 이남의 대동강유역에서 유행하였으며, 대평리 5호 고인돌, 평양시 남경, 표대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B형토기는 형태 및 문양구성상 A형토기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원전 9세기 말 중국 요녕지역에서 유입된 문화요소가 대동강유역 팽이형토기의 영향을 받아 형태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⁴⁵⁾

김미경이 분류한 청천강 이북지역의 A형토기는 구경부가 짧고 최대 폭경이 동체 하단 혹은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하는 등 그 형태적 속성이 요동지역의 弦文壺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토기의 형식변화 추이를 유추할 수 있겠는데, 동체와 구연부 형태 및 공반유물 등에 근거하여 대략 3단계(3식)에 걸친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다.⁴⁶⁾



〈도 10〉 압록강유역의 A형 토기 조합

44) 박순발,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2003, 96쪽; 김미경, 「미송리형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2006, 76쪽.

45) 김미경, 앞의 글, 2006, 74~76쪽.

46) 朱永剛, 앞의 글, 2008; 오대양, 앞의 책, 2013, 71~74쪽.

먼저 1단계(1식)는 신암리와 토성리유적 출토품을 대표로 한다. 장경의 발구 형태 및 최대경부의 위치, 횡교상과 구순상파수가 부착된 점이 쌍방 6호, 신성자모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2단계(2식)는 미송리 I 형(미송리유적 상층 제1군)을 대표로 한다. 전단계에 비해 구경이 넓고 길어지며, 동체는 고복해진다. 동체에 횡교상파수 혹은 구순상파수가 대칭으로 있다. 3단계(3식)는 미송리 II 형(미송리유적 상층 제2군)을 대표로 한다. 구연부가 전단계에 비해 길고 넓어져서 형태상으로는 묵방형토기와 유사하며 전단계에 유행한 횡교상이 대신 뉴상파수가 붙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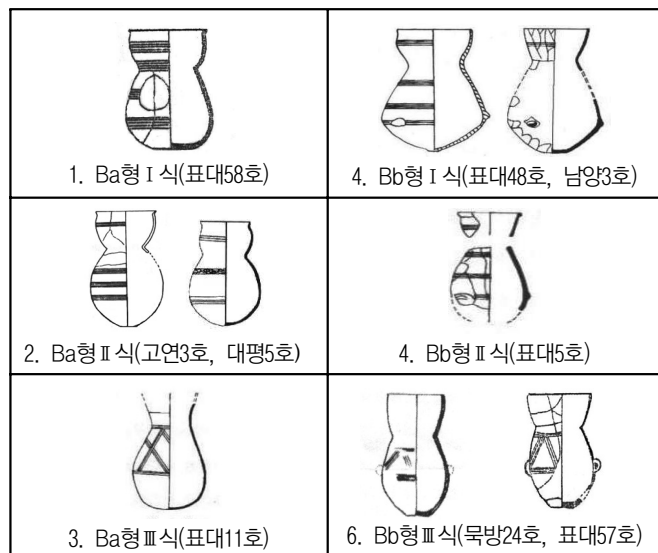
한편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되는 B형토기는 A형에 비해 구경부가 넓고 길며, 동체부에 횡교상파수 대신 구순상파수 혹은 뉴상파수가 붙어있거나, 혹은 손잡이가 없는 특징이 보인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토기바닥이 팽이형토기와 같이 뾰족한 형태를 보인 다는 점이다. B형 토기는 손잡이의 유무와 현문형태에 따라 다시 a · b 아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Ba형은 손잡이가 없으며, 동체부 형태의 변화상에 따라 3식으로 나뉜다. 1식 : 동체형태가 아래로 쳐져 있으며, 바닥은 평저이다(표대 58호 주거지). 2식 : 동체가 고복해지며 세장해진다(대평리 5호 고인돌, 고연리 3호주거지). 3식 : 세장해진 동체부에 X자가 교차 시문된다(표대 11호).

Bb형은 동체 중간부에 뉴상파수가 대칭으로 붙었다. 동체와 구연부 형태변화에 따라 다시 3식 구분된다. 1식 : 최대 복경이 동체 하단에 위치한다(표대48호, 남경3호 주거지). 2식 : 기형이 전체적으로 세장해진다(표대5호). 3식 : 묵방형토기의 전형으로 동체와 경부가 모두 세장해 지며, 현문대 사이에 삼각문이 시문된다(표대 57호).

이상 A · B형 토기의 편년 및 형식 간 선후관계에 대해선 비교적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이글의 A형1식에 해당되는 신암리 출토품은 요남의 쌍방 6호와 그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시기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9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⁴⁷⁾ A형2식은 1식에 비해 구연부가 커지고, 동체는 세장해진다. 형태적 특징만을 놓고 볼 때 A형3식에 비견되는 묵방형토기와 의 중간형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B형 토기들의 편년에 관련하여 박순발은 팽이형토기 제2단계에 해당되



〈도 11〉 대동강유역의 B형 토기 조합

47) 朱永剛, 앞의 글, 2008, 93쪽.

는 남경 3호주거지(본문Bb형1식)에서 공반된 이중구연 평저토기를 요녕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초기와 관련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원전 9~7세기 사이로 추정하였다.⁴⁸⁾ 이러한 남경 3호 출토 Bb형1식과 동일한 토기가 남경유적 바로 인근에 위치한 표대유적 48호 주거지⁴⁹⁾에서도 출토되었다. 표대 48호에서는 Bb형1 식과 함께 혈구가 있는 석모가 출토되었다. 이처럼 혈구가 표현된 석모는 동일한 특징(혈구식)의 석검 및 이단병식과 함께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그 하한연대가 기원전 8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을 참고할 경우,⁵⁰⁾ 이러한 특징의 석검 혹은 석모와 공반되는 토기들의 상대편년에 큰 도움이 된다.

표대 48호 출토 석모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황북 덕암리석관묘, 평남 오신리주거지,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 리유적과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 8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이중 오신리주거지⁵¹⁾에서는 표대 48호 출토품 과 동일 형식(Bb형1식)의 토기, 3점의 혈구식 석모, 2점의 이중구연 평저토기가 출토되었다. 그중 이중구연 의 토기는 남경 3호에서도 Bb형1식의 토기와 공반되어, 이상 3가지 유물들은 모두 동시기성을 가진다. 황주 군의 고연리유적⁵²⁾은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간 중북관계 및 선후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팽이형토기문화의 취락유적이다. 팽이형토기문화 2단계에 속하는 8호 주거지에서는 혈구식 석검과 함께 미송리형 토기의 저부 편(추정)이 공반되었다. 8호 주거지와 동일층위에서 발견된 고연리 3호 주거지에서는 Ba형2식 토기가 출토 되어 이들 또한 동일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연리 8호 석검과 동일한 형식의 혈구식 석검이 대평리유적⁵³⁾에 서도 확인되었다.

대평리유적 역시 팽이형토기문화 주거지들과 함께 고인돌과 석관묘가 발굴되었다. 이중 혈구식은 석관묘 에서 출토되었으며, 석관묘 인근에 위치한 고인돌에서는 고연리 3호 출토품과 유사한 Ba형2식토기가 출토되 었다. 표대유적 5호주거지에서는 Bb형2식 토기가 이단병식의 혈구식 석검과 공반되었다. 표대유적 11호주 거지에서 Ba형3식토기와 함께 Bb형1식토기의 재활용품이 출토되었다. Ba형3식은 동체형태 및 문양구성상 묵방형토기와 유사한데 동체부 현문사이에 X자가 연속시문 되었다. 표대 10호와 57호 주거지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묵방형토기인 Bb형3식이 출토되었다. 그중 표대 10호 주거지에서는 비파형동모와 공반되어 그 시기 성을 반영해 준다.(도12)

묵방형토기의 연대범위는 표대 10호에서 공반된 비파형동모의 시간성을 비롯해 전형유적에서 확인되는 층위관계 및 그 공반유물 관계를 종합하면 기원전 7~6세기 정도로 볼 수 있다.⁵⁴⁾ 그런데 혈구식 석검을 통 해 상대편년이 가능한 B형토기들의 형태변화만을 놓고 본다면 1식과 2식사이에는 연대상 큰 폭이 없을 것으 로 보여진다.⁵⁵⁾ 따라서 미송리유형의 A·B형 토기는 공반유물 및 토기형태의 변화에 따라 요동지역과 마산

48) 박순발,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2004.

4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평양시고대집자리 - 조선고고학전서11』, 진인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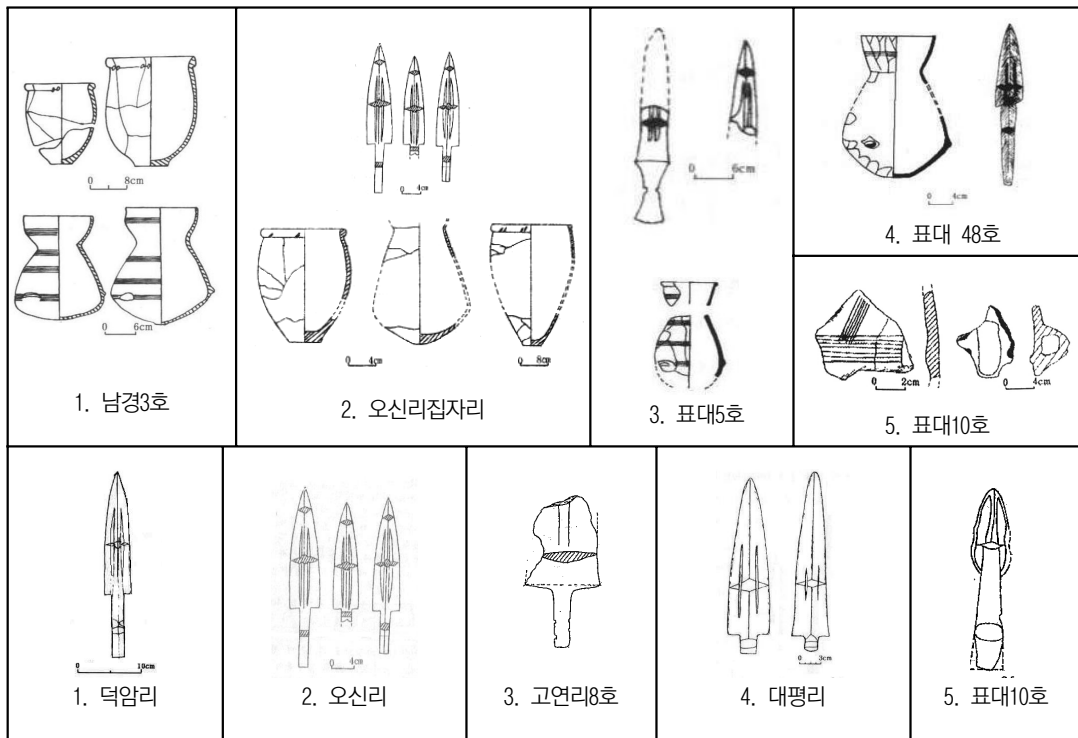
50) 배진성,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 2007, 176~177쪽; 손준호,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 2006, 75~87쪽.

51) 김성국, 「오신리유적의 팽이그릇시기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08-1, 2008, 3~6쪽.

5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해남북도 고대집자리 - 조선고고학전서 13(고대편4)』, 2009, 121~168쪽.

53) 정찬영,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1974, 138쪽.

54) 오대양, 앞의 책, 2013, 73~76쪽.



〈도 12〉 미송리유형 B형토기의 공반유물 조합(상1~5) 및 혈구식 석검과 석모(하1~5)

가지로 전 · 후 2단계의 발전과정을 생각 할 수 있다.

전기의 연대는 A형1식과 쌍방6호와의 비교, B형1·2식토기와 함께 공반되는 이중구연 평저토기 및 혈구식과 이단병식 석검의 하한연대를 적용하여 잠정적으로 기원전 9~8세기로 설정하겠다. 후기는 Ba형3식(표대11호)과 Bb형3식(표대10, 57호)의 공반유물 및 기형으로 보아 묵방형단계인 기원전 7~6세기 전후로 편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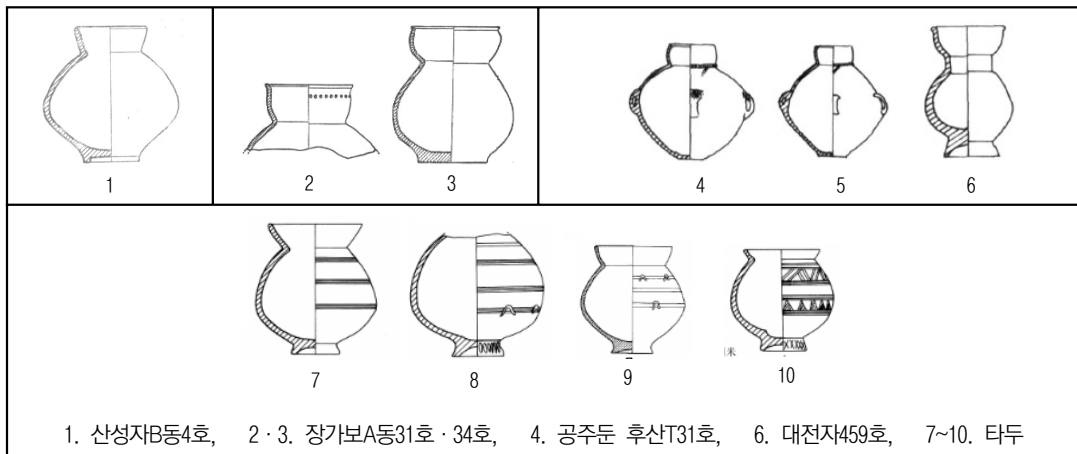
이외에 평양시 남양리유적에서는 팽이형토기문화 4단계에 해당되는 25호 주거지에서 묵방형토기에 비해 동체가 더욱 세장해진 남양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현재 남양형 토기는 묵방형토기보다 한단계 늦은 시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미송형토기의 최후형식으로 분류되어 진다.

55) 하지만 A형토기 중 가장 빠르게 편년되는 신암리 출토품에서 늦은 단계인 묵방형토기까지의 형태변화 및 요동지역 현문호와 길림 서단산형호의 형태변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3식까지의 형태변화상은 참고할 만하다. A·B형 모두 최대경부가 동중하에 위치한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고복화 및 세장화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묵방리형의 만기형식으로 변화된다.

Ⅳ. 미송리문화의 형성과 전개

앞에서는 공반유물 관계를 통해 서북한지역 미송리형토기의 형태적 변화를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요동지역 또한 그 대략적인 변화상을 유추할 수 있는데 만약 두지역 모두를 포괄하는 공통된 기준안을 잡아 낼 수 있다면 그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이 토기의 분포범위는 매우 넓은 편으로 그 지역적 형식특징 또한 다양하여 만족된 표준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서북한지역은 물론 요동지역에서도 현문의 전형적인 형태의 것(과 무문의 것이 공반되는 현상이 확인된다.⁵⁶⁾ 이들은 장식적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의 형태적 특징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미송리형토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⁵⁷⁾

사실 미송리형토기의 시공간적 범위와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문과 손잡이라는 장식적 요소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양구성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형태적 특징 속에 지역별로 각자의 개성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3〉 무문 발구호(A형)와 현문 사구호(B형) 각종

미송리형토기를 규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鉢口, 弦文, 각종 손잡이 형식 등이 포함된다. 발구, 즉 단면 표주박형의 형태에서는 罐形의 토기 상부에 鉢形토기가 복합된 구조의 특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마성자문화 2·3단계의 유적(산성자B동4호, 장가보A동31호, 34호)을 비롯한 고대산(공주둔후산

56) 발생기적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마성자관계의 동굴유적 및 요남의 타두유적에서도 무문양과 유문양의 것이 함께 발견되며, 현재 대부분의 관련유적에서도 이들의 공존관계가 뚜렷히 간취되고 있다.

57) 王巍, 앞의 글, 2004; 朱永剛, 앞의 글, 2008; 오강원, 「요동~서북한지역 미송리형호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상고사학보』 85, 2014.

T31호), 하가점 하층문화(대전자459호) 등의 관련유적에서도 드물게 확인되고 있다(도13-1~6). 또한 현문적 요소는 쌍타자문화계열 토기의 보편적 특징이며 그중에서도 쌍타자 3기(타두)에 특히 유행된다⁵⁸⁾(도3, 도13-7~10). 그리고 미송리형토기의 손잡이는 장식적 요소가 매우 강한 편인데, 이중 횡교상파수는 마성자문화에서, 수교상파수는 고대산문화, 구순상은 쌍타자 3기문화 토기에 주로 배풀어지던 장식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양속성들은 당지의 개성과 함께 주변지역의 제요소가 복합되어 매우 다양하게 응용 ·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표준형으로 여겨지던 쌍방 6호나 신암리주거지의 현문과 각종 손잡이(횡교와 구순상파수)의 복합양상은 이 유형 토기의 정형화된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지역의 특수성 혹은 특정시기에 유행된 복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형태적 속성은 단면 표주박형이라는 기본형태가 분포지역 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대동강유역에서는 그 바닥형태가 팽이형토기의 것을 많이 닮아 있어, 변이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단면 표주박형이라는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송리형토기의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이 되는 표주박형 단면(장경발구형)을 가지며, 교상파수와 능상 혹은 구순상파수가 붙어 있으나 무문인 토기, 혹은 발구형에 손잡이 없이 현문만 있는 것, 구연이 단경사구형에 무문이지만 전형의 손잡이가 달린 것, 무문에 손잡이가 없으나 발구형으로 단면이 표주박형을 보이는 것 등등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적, 장식적 속성들을 정리하여 유형화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무문의 (Ⅰ)장경발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A)무문의 (Ⅱ)단경사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B)현문의 (Ⅰ)단경사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B)현문의 (Ⅱ)장경발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이를 바탕으로 핵심이 되는 주요 속성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A : 요북형(도13, 1~6참조), 장경발구의 단면 표주박형 패턴을 기본으로 그 형태적 속성이 강하게 전승되며, 여기에 다양한 패턴의 장식적 요소가 파생된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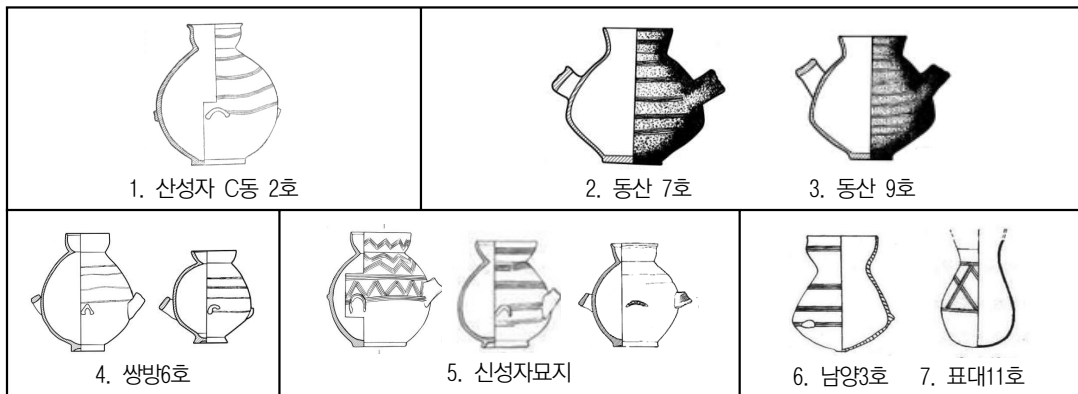
B : 요남형(도13, 7~10참조), 현문과 구순상파수와 같은 장식적 속성을 기본으로 한다. 당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며 형태적 속성인 단경사구를 기본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

부연하면, 장식적 속성 중 현문과 구순상파수는 요남의 쌍타자계열, 장경발구와 횡교상파수, 수교상파수는 요북의 마성자와 고대산문화에서 그 계통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A형은 주로 요북지역에서 보편적이며, 요남지역에선 AⅡ형만 드물게 확인된다. 그리고 BⅠ형은 요동지역 전체에서 보편적인데, 그중 BⅠa형이 요북

58) 마성자문화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현문적 속성은 쌍타자 3기문화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59) 이중 한 갈래가 당지에서 신성자유형(현문과 무문, 손잡이)으로 발전되며, 다른 한 갈래는 길림의 서단산유형(무문, 손잡이)과 동요하 하류의 후태평유형(단순무문)으로 파생된다.

지역에서는 횡교상파수와 구순상파수가 공존, 요남에서는 구순상파수만 초기유적인 타두묘지에서 확인된다. BⅡa형은 전지역에 걸쳐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하지만 대동강유역 BⅡa형의 손잡이는 모두 구순상 혹은 뉴상파수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BⅡb형은 대동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대동강유역의 미송리형토기는 요남의 타두유적과 보다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청천강이북지역은 남·북 두지역의 제요소가 복합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도 14〉 미송리형토기 각종

아직까지 어느 형식의 것이 시원적 형태인지에 대해선 정설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년대가 가장 빠른 것은 장가보(A형)와 타두유적(B형) 출토품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이다(도13). 두 유적은 편년관계상 기원전 14~12세기 전후의 동시기성을 보이기에, 양자는 남·북 각지에서 공존 하다가 산성자 C동굴(BⅡa-구순상파수 : 도14-1)과 동산묘지(BⅡa-횡교상파수 : 도14-2,3)에서 두 요소가 복합되는 현상(기원전 11~10세기 전후)이 서로 다른 패턴(장식 : 손잡이)으로 나타나며, 쌍방과 신성자단계(기원전 9~8세기)에서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복합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도14-4,5). 하지만 대동강유역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보여 지는데, 평이형토기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면서 여기에 현문과 구순상(혹은 뉴상) 파수라는 쌍타자계열(요남형)의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다(도14-6,7).

요컨대 미송리형토기는 장정 발구라는 기본적인 패턴 속에 현문을 비롯한 다양한 장식적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색을 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 기원과 형성과정에는 남북 두갈래의 문화요소가 일정한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문화접변을 거쳐 점차적으로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미송리형토기의 형성과정을 요북과 요남지역의 문화접변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이 지역 묘제의 변화상에서도 간취되어 이문화가 형성되는 배경을 추론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쌍방유형의 묘제는 탁자형 고인돌과 적석묘 위주의 쌍타자문화계열로 볼 수 있으며, 신성자유형은 개석형 고인돌과 석관묘 위주의 마성자문화계열에 포함된다. 반면 서북한의 미송리유형은

탁자형과 개석형고인돌, 석관묘, 적석묘 등 제요소가 복합된 양상을 보이며 그 바탕이 되는 팽이형토기문화와 오랫동안 병행된다. 이상 3가지 계열의 문화가 특정시기가 되면 강한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질적인 문화로 귀속되는 현상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파형동검관계 청동유물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경우, 기원전 9~8세기 전후 요서, 요동과 서북한지역은 비파형동검관련 청동기문화, 미송리형토기문화, 고인돌 · 석관묘 · 적석묘 · 석곽(목관)묘 위주의 석묘문화 등이 복합된 매우 종합적인 형태의 문화내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요남지역의 탁자형 고인돌과 적석묘유적, 요북의 개석형 고인돌과 석관묘유적을 과연 동일한 하나의 문화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미송리문화의 주체가 되는 제요소들이 모두 석제를 장구로 한 무덤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요동지역 고인돌의 편년과 발생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때에는 요동반도에서 보편적으로 유행되었으며, 서북한지역 역시 그와 유사하거나 혹은 조금 늦은 시기에 채택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런데 최근 요남지역 보란점일대의 탁자형 고인돌에서 기원전 16~14세기로 편년 할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이 출토되어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⁶⁰⁾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묘실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쌍타자문화의 적석묘 및 마성자문화의 동굴무덤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⁶¹⁾ 즉 이지역 탁자형 고인돌은 쌍타자 및 마성자문화의 접변과정을 통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북한지역 고인돌의 출현과 확산과정은 이러한 요동지역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대동강하구의 서해안지역에서는 기원전 13세를 전후한 시점부터 탁자형고인돌이 축조되는데, 구조는 물론 출토유물상에 있어 동시기 요동반도의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는 동일한계통의 사람들이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개석형고인돌은 태자하구역의 마성자문화 사람들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요동반도의 탁자형 고인돌문화와 접촉하여 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⁶³⁾ 가장 빠른 연대를 보이는 것이 봉성 동산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커다란 뿔개돌 밑으로 토광식의 묘실을 두었고, 그 내부에서는 마성자문화 후기단계의 전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동산유적의 토광식묘실을 가진 개석(Ⅰ)식은 기원전 12~11세기 전후로 편년 할 수 있다. 또한 동산유적의 석축식묘실을 가진 개석(Ⅱ)식에서는 고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본계 대편지유적에서는 개석Ⅱ식에서 전형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었고, 괴석과 판석을 혼용하여 묘실을 만든 개석(Ⅲ)식이 발굴된 개원 건재촌에서는 후기형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수습되었다. 북한의 대동강유역에서는 기원전 7세기 전후부터 개석Ⅱ식과 Ⅲ식이 축조되기 시작하며, 묘실에서 목방형토기가 출토된다.⁶⁴⁾

한편 마성자문화 후기단계인 기원전 12세기 전후, 동굴무덤의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점차 동굴바깥으

60) 華玉氷, 앞의 책, 2011, 211~212쪽.

61) 吳大洋, 앞의 책, 2013, 200~203쪽.

62) 오대양, 앞의 글, 2014, 97~101쪽.

63) 백종오 · 오대양, 「遼東地域 支石墓의 研究成果 檢討」, 『동아시아고대학』 34, 2014, 67~68쪽.

64) 이글에서 다루어진 고인돌의 형식분류와 개념 및 편년관계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吳大洋, 앞의 책, 2013, 115~129쪽; 오대양, 「중국 요동지역 고인돌문화의 출현과 형성과정」, 『북방문화의 기원과 형성』 북방문화연구소 17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5, 39~42쪽.

로 탈피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와 동시에 태자하유역을 중심으로 한 요북지역에서는 새로운 무덤양식인 석관묘전통이 시작되는데 원시형태의 석관묘들이 동굴무덤내부에서도 확인되며 양자의 출토유물이 동일함을 통해볼 때 초기의 석관묘유적은 마성자문화에 속할 수 있다. 이처럼 태자하유역의 마성자문화가 점차 동굴바깥으로 벗어나는 과정 중 인접한 대양하유역에서 쌍타자3기의 고인돌문화와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동산유적에서는 고인들의 주요특징인 덮개돌을 가지면서 묘실구조와 유물은 동굴무덤의 전통을 유지하는 개석형이 축조된다. 이후 본계 대편지유적과 개원 건재촌유적을 걸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한 시점 개석형이 대동강유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요남지역의 적석묘문화는 소주산 상층문화단계에 이미 등장하며, 쌍타자 1기문화에는 매우 보편적인 무덤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기원전 25~20세기 초반으로 설정되는 이 시기 요남지역의 문화는 산동반도의 용산문화와 친연성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나, 적석묘의 축조 전통은 당지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쌍타자 2기문화에 돌연 적석묘 축조 전통이 단절되며 바로 이때 요북지역 마성자문화의 동굴묘에서 돌을 재료로 쓴 무덤과 쌍타자문화계열의 유물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쌍타자2기에서 3기초반에는 요동반도의 벽류하유역에서 고인돌축조가 시작되며,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적석묘문화가 재등장 한다. 이때(쌍타자3기)의 적석묘는 쌍타자1기의 전통을 모방 혹은 계승하였음이 분명하며 고인돌과 적석묘의 구조와 장속, 유물방면 등이 매우 닮아 있다.⁶⁶⁾

요동반도에서 고인들이 처음 등장하는 벽류하유역은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의 중간지점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판석 여러 개를 세워 묘실을 만든 구조의 고인돌과 석관묘의 묘실형태는 동시기 유행한 마성자문화의 석관묘제와 매우 닮아 있으며 그 내부에서는 쌍타자 2기문화와 마성자 2~3기문화의 전형토기가 공반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벽류하유역의 초기 고인돌은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 사람들의 문화접변을 통해 두 문화의 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고인돌의 분포범위 및 문화내용상 그 주체는 쌍타자문화에 보다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쌍타자 3기가 되면 묘실주변으로 대규모의 적석시설이 부가된 탁자형 고인돌(개주 화가와보유적)⁶⁷⁾이 등장하는데 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전 단계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된다. 즉, 이미 이단계부터 석관묘(마성자문화), 고인돌·적석묘문화(쌍타자문화)는 상호 복합적인 문화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더불어 미송리문화단계(쌍방유형)의 쌍방묘지에서는 전형적인 탁자형 고인돌과 여러 개의 판석을 이어세운 초기유형의 것이 동시에 발견되며 출토유물 역시 전단계와 계승관계를 보인다.

쌍방유형의 적석묘는 묘실구조 및 장속특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묘실의 축조는 보편적으로 개진돌이나 막돌을 쌓아 만들던 것이 점차 판석을 세우거나 쌓는 형식으로 변화되며, 내부에서는 직접화장 혹은 간접화장이 이루어진다.⁶⁸⁾ 이러한 특징은 동시기 벽류하유역에서 유행한 고인돌의 구조 및 장속특

65) 오대양, 앞의 글, 2014, 99~101쪽.

66) 吳大洋, 앞의 책, 2013, 205~206쪽.

67) 華玉冰, 앞의 책, 2011, 19~20쪽.

6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앞의 책, 94~97쪽, 1996.

징과 유사하기에 양자는 동일한 문화의 개별 묘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요동지역 고인돌문화의 형성과정을 요남의 쌍타자와 요북 마성자문화의 접변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속문화에 해당되는 미송리문화는 요남(쌍방유형)과 요북지역(신성자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기에 이문화가 선행 두 문화의 접변과정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송리문화단계의 고인돌과 적석묘, 석관묘 등은 모두 전단계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해당지역에서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기원전 15~11세기 전후 요남의 적석묘와 요북의 동굴묘(석관묘), 그리고 그 중간지대의 고인돌은 모두 그 분포권역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송리문화단계에는 고인돌과 석관묘가 요북, 길림, 서북한지역 등에서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혹은 혈구식석검)이라는 공통적인 문화내용을 포함하며 각각의 지방유형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요남지역에서는 적석묘(반도남단)과 고인돌(벽류하), 석관묘(태자하)가 각각의 분포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비록 선행 두문화의 접변과정 중 그 중간지점에서 고인돌이라는 특수한 묘제가 출현하였지만 당지의 토착 전통과 묘제는 지속적으로 고수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 관계문화(십이대영자문화)는 고인돌, 석관묘, 적석묘 등과 함께 미송리문화를 대표하는 한축이 된다. 현재 이문화의 중심은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된다는 견해⁶⁹⁾가 있어 참고 할 수 있는데, 석곽(목관)묘를 포함하는 비파형동검관계 청동기문화를 고조선 중심세력의 표지로 볼 수 있다면⁷⁰⁾ 석관묘(동굴묘)와 적석묘문화는 당지의 토착문화로, 고인돌은 석관묘(동굴묘)와 적석묘의 복합문화, 석곽(목관)묘 문화는 선진외래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원전 9~6세기 미송리문화는 당지의 전통문화가 복합된 석묘문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한 고조선왕국의 한 지역문화로 볼 수 있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미송리문화는 매우 다양한 양상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 한 가지를 내세워 이 문화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송리문화를 형성하는 큰 줄기에는 미송리형관계 토기조합, 비파형동검관련 청동기문화, 고인돌로 대표되는 석묘문화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줄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물·유적의 복합체는 매우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한민족, 한문화의 성격을 이야기 할 때, 북방과 남방의 문화가 적절하게 어울려진 보다 종합적인 양상에서 이해를 구하듯이 어느 한 요소만을 특별히 부각해서는 우리문화의 원형을 온전히 표현해 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송리문화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별 문화가 복합되어 있기에 그 뚜렷한 특성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작업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69) 오강원, 앞의 책, 2006.

70) 이청규, 앞의 책, 2011, 85~91쪽; 박준형, 앞의 책, 2012, 203~204쪽.

접근이 요구된다.

미송리문화의 성격을 검토하는데 있어 접하게 되는 난해함은 이 문화를 곧바로 고조선문화로 이해하려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고조선문화를 규정지를 뚜렷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를 동일한 맥락으로 접근하기에 그 상충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고조선문화에 대한 정의와 시공간적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진전된 연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 글에서는 미송리문화를 고조선문화를 형성하는 큰 줄기 정도로 이해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국문

- 김용간, 「미송리동굴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과학출판사, 1963.
- 김용간,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김미경, 「미송리형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2006.
- 김성국, 「오신리유적의 팽이그릇시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08-1.
- 김종혁·전영수, 「표대유적 팽이그릇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 2003.
- 노태돈,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1990.
- 박순발,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2003.
- 박순발,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2004.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평양시고대집자리 - 조선고고학전서11』, 진인진, 2009.
- 박준형,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준형, 「대릉하 - 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 배진성,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 2007.
- 배진성,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동태와 분포권」,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 백종오·오대양, 「遼南地域 青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2013.
- 백종오·오대양, 「요동지역 지석묘의 연구성과 검토」, 『동아시아고대학』 34, 2014.
- 백종오, 「遼西地域 青銅器時代 文化設定에 대한 檢討」, 『고조선문명의 학제적연구 정기 학술대회발표집』, 2014.
- 복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2002.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해남북도 고대집자리 - 조선고고학전서 13(고대편4)』, 2009.
- 서국태, 「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1988.
- 손준호,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 2006.

-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 주영강, 「區位, 序列, 編年, 系統: 동북지역 청동기시대문화 구조체계 논강」,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9.
-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조법중,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韓國史論』 34,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조법중, 「고조선의 중심지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3.
- 정찬영,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1974.
- 오강원,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1·2)」, 『백산학보』 48·49, 1996·97.
- 오강원, 「중국 동북지역 세 청동단검문화의 문화지형과 교섭관계」, 『선사와 고대』 20.
-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 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2004.
- 오강원, 「요동~서북한지역 미송리형호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상고사학보』 85, 2014.
- 오대양,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2014.
- 이청규,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2007.
- 이청규,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2011.
- 황기덕, 「비파형동검문화의 미송리유형 1-미송리유형의 유적유물과 그 연대」, 『조선고고연구』 3, 1989.

◎ 중국어

- 勤楓毅,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后太平 - 東遼河下流右岸以青銅時代遺存爲主的調查與發掘』, 文物出版社, 2011.
- 唐森,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述評」, 『東北史地』 2008-6.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連出版社, 2000.
- 撫順市博物館·新賓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遼寧新賓漫族自治縣東升洞穴古文化遺存發掘整理報告」, 『北方文物』 2002-1.
- 朱永剛,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1998-2期.
- 朱永剛,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 2008-2.
-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雙砬子與崗上 - 遼東史前文化的發見和研究』, 科學出版社, 1996.
- 趙濱福, 「馬城子文化新論 - 遼東北部地區夏商時期遺存的整合研究」, 『邊疆考古研究』 6, 科學出版社, 2007.
- 趙濱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
- 陳光,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1989.

- 吳大洋,『朝鮮半島北部地區青銅器時代石構墓葬研究－兼論與中國東北之比較』,吉林大博士論文,2013.
- 吳世恩,「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北方文物』04-2,200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文物出版社,1994.
- 劉大志·柴貴民,「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遼海文物學刊』1993-2.
- 劉觀民·徐光翼,「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兩種文化」,『內蒙古文物考古』創刊號,1981.
- 王薌,「雙房遺存研究」,『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科學出版社,2004.
- 林雲,「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林雲學術文集,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8.
- 鄭淑敏,『后太平墓地再研究』,吉林大碩士論文,2014.
- 許志國,「遼寧開原建材村石棺墓群」,『博物館研究』2000-3.
- 華玉冰,『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科學出版社,2011.
- 華陽·霍東峰等,「四平山積石冢再認識」,『赤峰學院學報』2009-2期.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Patterns and Development of Bronze Age's Culture in Liaodong Region

- Focusing on So-called Shuangfang Culture and Misongri Culture -

OH, Daeyang*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ultural nature of Gojoseon Kingdom which has attracted attention of academic circles recently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e of Bronze Age in Liaodong region which is considered as an origin of our ancient history.

Culture of early Bronze Age in Liaodong region is classified into two regions of south and north in terms of distribution, over three phases of development process. The 1st phase of Lianan Area consists of three periods, ranging from the 1st period (around 21st century B.C.) of Shuangtuozi Culture which was affected by Shandong Area, going through the 2nd period (18th century BC~15th century BC), to the 3rd period (14th century BC~11th century BC) which has strong indigenous tradition.

In Liabei region, Machengzi Culture had begun at the later part of the 1st period of Lianan Area and showed similar patterns of development. However, they showed difference in terms of detailed contents, which indicates unique properties of cultures of both regions. Around the 9th century B.C., both north and south regions in Liaodong Area and western region of North Korea had similar culture zone of strong homogeneity through various exchanges and was gradually integrated as one culture, which is so called Misongri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 culture related to lute-shaped bronze sword became another axis of Misongri Culture and there is a perspective that the center of the culture was moved from Liaoxi region to Liaodong Area. If the subjects of the culture were considered as the key power group of Gojoseon Kingdom, it could be seen that Machengzi culture(cave tombs, stone-coffin tombs) and Shuangtuozi Culture(Stone-piled tombs, dolmen) were an indigenous culture of the region and Misongri Culture was the combined culture of them. The culture related to lute-shaped bronze sword (stone-coffin, wooden-coffin tombs) was considered as an advanced foreign culture. In sum, Misongri Culture in the 9th~6th century BC can be seen as a regional culture of Gojoseon

* Non-ta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Kingdom that had developed by accepting advanced cultures of that time, including stone-tomb culture combined with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Liaodong region, Bronze Age Culture, Shuangfang culture, Misongri Culture, Gojoseon Kingdom